

간호학생이 지각한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이현정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mage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Lee, Hyun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Gangwon-do,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anges in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to 60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in Goseong-gun, Gangwon-do. All participants had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for 8 weeks at four general hospitals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using SPSS 19.0. **Results:** After the first clinical practice, the mean score (4.05 ± 0.85) of the image of nurse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image (4.03 ± 0.93) before the clinical practice.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scor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linical practice ($t = -0.55, p = .589$). In four subcategories, before the first clinical practice, professional imag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raditional, personal, and social image in order but after the clinical practice, professional imag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raditional, social, and personal image in the mean scores of the image of nurs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y be a basis for expanding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related to image of nurse.

Key Words: Image of nurse, Nursing student, First clinical practic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다양한 환경의 인간과 접촉하여 건강을 증진, 유지, 회복하도록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간호 실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용학문이다. 따라서 간호 교육에서는 이론 교육 못지않게 실습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Lee & Kim, 2006).

이미지(image)는 한 대상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인상의 집합체이며 태도를 형성하는 한 요소이다(Kim & Kim, 2001; Kim, 2006). 간호라는 이미지는 하얀 가운, 간호사 모자, 바늘 등의 전통적인 이미지부터 친절, 희생, 기술, 지식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Craven, Hirmle, & Jensen, 2013). 현대사회에서의 여성 역할의 확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간호, 교육 분야에서의

의 쟁점 등은 간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Emeghebo, 2012; Gordon, 2010; Lee & Kim, 2006)

한편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방법 및 태도를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 학생의 자아개념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면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실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간호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임상실습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Lee, Kim, & Kim, 2004). 그리고 임상실습은 간호사의 실제 업무를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사의 위치와 역할, 이미지는 간호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im & Kang, 2004). 또한 간호 교육과정을 통한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간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미지 변화 및 향상을 유도할 수

주요어: 간호사 이미지, 간호 학생, 임상실습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yun Ju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46 Bongpo 4-gil, Toseong-myeon, Goseong 219-705, Korea
Tel: +82-33-639-0235 Fax: +82-33-639-0239 Email: hlee@k1.ac.kr

투고일(date received): 2014년 9월 28일 심사완료일(data of review completion): 2014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date accepted): 2014년 11월 30일

도 있다(Oh, Choi, Kwon, & Park, 2005).

그러므로 임상실습 전 막연하게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시기인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이 간호사의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인(Kim & Kim, 2001; Lee, 1995; Yang, 1998)이나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미지 조사 및 단면적인 횡단적 조사(Joo & Shin, 2012; Lee, Kim, & Kim, 2004; Oh, Choi, Kwon, & Park, 2005)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 전후로 변화한 간호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조사 시기가 첫 임상실습 기준이 아니거나(Lee, Kim, & Kim, 2004), 1주간의 기본간호학 첫 임상실습 전후의 조사이거나(Kim & Kang, 2004), 2개 종합병원의 첫 4주간 실습 전후로 조사한 연구(Yang, 2003)만이 있어 다양한 전공별 병원에서의 장기간 실습 전후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후에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하여 비교 및 분석하고,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첫 임상실습 전과 후에 지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을 비교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전후에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서술한 조사연구 설계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일개 4년제 대학을 임의 선정하여 임상실습 경험이 전혀 없는 3학년 학생 65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paired t-test를 위한 최소 표본 수는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5, 검정력 0.95의 수준에서 45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조사결과 기록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하게 기록된

자료를 제외한 6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문항과 선행연구(Lee, Kim, & Kim, 2004; Yang, 2003)에서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간호사 관련 경험 5문항, 그리고 Yang (1998)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의 5점 척도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 이미지 측정 도구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통적 이미지(12문항), 사회적 이미지(7문항), 전문적 이미지(6문항), 개인적 이미지(3문항) 영역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인적 이미지 3문항은 부정 문항이므로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역환산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였다. 이를 하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전통적 이미지 Cronbach's $\alpha = .94$, 사회적 이미지 Cronbach's $\alpha = .82$, 전문적 이미지 Cronbach's $\alpha = .85$, 개인적 이미지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였고,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위하여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은 다음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고, 첫 임상실습 전과 서울 소재의 4개 종합병원에서 8주간의 성인, 모성 및 아동 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직후에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번호를 실습 전과 후로 따로 부여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대상자의 첫 임상실습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차이는 paired t-test,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실습 전후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첫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

간호 이미지 28문항에 대한 간호학생의 응답은 Table 1과 같다. 실습 전에는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가 평균 4.55 ± 0.67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

Table 1. Degrees of Image of Nurse Before and After First Clinical Practice

(N = 60)

Item	Before M ± SD	After M ± SD	Mean difference	t (p)
Traditional				
Clean and tidy	4.48 ± 0.70	4.45 ± 0.67	-0.03	
Do work accurately	4.30 ± 0.78	4.32 ± 0.76	0.02	
Understand and support patients	4.05 ± 0.83	4.03 ± 0.75	-0.02	
Rational and logical	4.15 ± 0.81	4.17 ± 0.73	0.02	
Responsible	4.28 ± 0.80	4.37 ± 0.66	0.08	
Devoted	4.12 ± 0.91	4.23 ± 0.74	0.12	
Cooperative and good at interpersonal relations	3.95 ± 0.88	4.17 ± 0.66	0.22	
Highly reliable	4.27 ± 0.83	4.25 ± 0.57	-0.02	
Give priority to patients	3.92 ± 0.95	3.68 ± 0.81	-0.23	
Worthy to be called an angel in white	3.82 ± 0.96	3.87 ± 0.85	0.05	
Respond to patients' demand immediately	3.87 ± 0.85	4.00 ± 0.71	0.13	
Comfort patients	3.87 ± 0.94	3.93 ± 0.65	0.07	
Subtotal	4.09 ± 0.88	4.12 ± 0.75		-1.00 (.338)
Social				
Highly intellectual	4.35 ± 0.73	4.32 ± 0.85	-0.03	
Counsellor	4.00 ± 0.86	4.07 ± 0.91	0.07	
The social status is likely to be high	3.68 ± 0.90	3.77 ± 0.97	0.08	
Health educator	4.00 ± 0.82	4.18 ± 0.85	0.18	
Play like a mother role	3.53 ± 0.94	3.80 ± 0.87	0.27	
Perform nursing works independently	3.37 ± 1.15	3.47 ± 1.19	0.10	
Work with doctors as their colleague in an equal position	3.17 ± 1.27	3.38 ± 1.18	0.22	
Subtotal	3.73 ± 1.04	3.85 ± 1.04		-3.36 (.015)
Professional				
Have expert skills	4.45 ± 0.72	4.33 ± 0.72	-0.12	
Work actively	4.25 ± 0.83	4.22 ± 0.75	-0.03	
Proud of the job	4.22 ± 0.97	4.08 ± 0.80	-0.13	
Have professional knowledge	4.55 ± 0.67	4.37 ± 0.71	-0.18	
Do valuable and fruitful works	4.53 ± 0.53	4.30 ± 0.71	-0.23	
Carry out works in an organized way	4.32 ± 0.79	4.20 ± 0.68	-0.12	
Subtotal	4.39 ± 0.77	4.25 ± 0.74		4.99 (.004)
Personal				
Unkind	3.72 ± 0.88	3.70 ± 0.88	-0.02	
Selfish	3.98 ± 0.79	3.88 ± 0.80	-0.10	
Speak impatiently	3.78 ± 0.86	3.82 ± 0.87	0.03	
Subtotal	3.83 ± 0.85	3.80 ± 0.85		0.66 (.578)
Total	4.03 ± 0.93	4.05 ± 0.85		-0.55 (.589)

을 한다'가 평균 3.17 ±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 후에는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가 평균 4.45 ± 0.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한다'가 평균 3.38 ±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 전후로 이미지 평균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사회적 이미지 요인 중 '간호사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로 실습 후 0.27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미지 평균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전통적 이미지 요인의 4항목과 개인적 이미지 요인의 '간호사는 불친절하다'로 각각 0.02의 증가나 감소를 보였다(Table 1).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에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실습 전(4.03 ± 0.93)보다 실습 후(4.05 ± 0.85)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 -0.55, p = .589$). 4가지 하부 영역 중 전통적 이미

지는 실습 전(4.09 ± 0.88)보다 후(4.12 ± 0.75)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 = -1.00, p = .338$), 사회적 이미지는 실습 전(3.73 ± 1.04)보다 후(3.85 ± 1.04)가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 = -3.36, p = .015$). 그러나 전문적 이미지는 실습 전(4.39 ± 0.77)보다 후(4.25 ± 0.74)가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 = 4.99, p = .00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 이미지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사 관련 경험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간호학생의 연령은 21.62세로, 21-25세가 60%를 차지했다. 종교는 무교가 75%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관련 경험으로는 학생 본인이 입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6.7%, 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 역할을 경험한 학생이 45%, 입원환자 문병 경험이 96.7%

Table 2. Degrees of Image of Nurs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General Questionnaire of Nurse-Related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First Clinical Practice (N = 60)

Item		n (%)	Before M ± SD	t or F(p)	After M ± SD	t or F(p)
Age	≤ 20	19 (31.7)	4.03 ± 0.78	0.196 (.823)	4.08 ± 0.89	0.15 (.861)
	21-25	36 (60.0)	4.02 ± 1.01		4.03 ± 0.86	
	26-30	5 (8.3)	4.19 ± 0.81		4.17 ± 0.62	
Gender	Male	9 (15.0)	4.17 ± 0.79	0.809 (.434)	4.09 ± 0.76	0.21 (.839)
	Female	51 (85.0)	4.01 ± 0.95		4.04 ± 0.87	
Religion	Protestantism	7 (11.7)	4.20 ± 0.51	0.586 (.626)	4.13 ± 0.37	3.02 (.137)
	Catholicism	6 (10.0)	4.15 ± 0.36		3.45 ± 0.40	
	Buddhism	2 (3.3)	3.68 ± 0.18		4.38 ± 0.45	
	None	45 (75.0)	4.00 ± 0.58		4.10 ± 0.55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Have	28 (46.7)	4.02 ± 0.45	-0.230 (.819)	4.02 ± 0.57	-0.34 (.734)
	Havn't	32 (53.3)	4.05 ± 0.63		4.07 ± 0.54	
Experience of caregiver	Have	27 (45.0)	3.97 ± 0.60	-0.827 (.411)	4.13 ± 0.51	1.04 (.303)
	Havn't	33 (55.0)	4.09 ± 0.50		3.98 ± 0.58	
A visit to a sick person	Have	58 (96.7)	4.03 ± 0.55	-0.322 (.749)	4.03 ± 0.55	-1.17 (.247)
	Havn't	2 (3.3)	4.16 ± 0.66		4.50 ± 0.32	
Number of nurses among family member or relatives	1 ≤	31 (51.7)	4.01 ± 0.65	-0.294 (.770)	3.87 ± 0.59	-2.66 (.010)
	0	29 (48.3)	4.06 ± 0.44		4.24 ± 0.44	
Nurses associated press on the media	Ever experienced	57 (95.0)	4.04 ± 0.56	0.484 (.630)	4.03 ± 0.56	-1.37 (.175)
	Never experienced	3 (5.0)	3.88 ± 0.31		4.48 ± 0.19	

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7%,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접한 경험에 있는 학생은 95%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실습 전(4.17 ± 0.79)과 실습 후(4.09 ± 0.76) 이미지가 여학생의 실습 전(4.01 ± 0.95)과 후(4.04 ± 0.8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간호사 관련 경험에서는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의 실습 전(4.05 ± 0.63)과 실습 후(4.07 ± 0.54) 이미지가 입원 경험이 있는 학생의 실습 전(4.02 ± 0.45)과 후(4.02 ± 0.5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 환자 문병 경험이 없는 경우의 실습 전(4.16 ± 0.66)과 실습 후(4.50 ± 0.32) 이미지가 문병 경험이 있는 학생의 실습 전, 후(4.03 ± 0.55)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실습 전(4.06 ± 0.44)과 실습 후(4.24 ± 0.44) 이미지가 가족,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의 실습 전(4.01 ± 0.65)과 후(3.87 ± 0.59)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후의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655, p = .010$).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접한 경험 유무에서는 실습 전후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논 의

일반 대중이 갖는 간호사 이미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과 정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간호사가 긍정적인 간

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바람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Lee & Kim, 2006).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이 간호사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 간호 교육 시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사 이미지 28문항에 대한 간호학생의 응답 중 실습 전에는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가 평균 4.55 ± 0.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한다'가 평균 3.17 ±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 후에는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가 평균 4.45 ± 0.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한다'가 평균 3.38 ± 1.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습 전후 모두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한다'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Oh, Choi, Kwon과 Park (2005)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실제로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환자 간호, 교육, 다른 의료진 및 부서와의 협조, 조정, 중재 등 병원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간호 업무의 일부분을 협업 관계가 아닌 수동적이나 소극적 관계로 인식했다고 생각된다.

실습 전후로 '간호사는 깨끗하고 단정하다', '간호사는 지적 수준이 높다', '간호사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 '간호사는 숙련된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고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Korean Nurses Association, 2006; Yang, 1998) 및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Joo & Shin, 2012; Lee,

Kim, & Kim, 2004)과 유사한 결과였다.

4개의 하부 요인별 간호사 이미지 수준에서 실습 전 대상자들은 전문적, 전통적, 개인적,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실습 후에는 전문적, 전통적, 사회적, 개인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나 실습 후에 개인적 이미지가 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냈다. 첫 실습 전후 모두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Kim과 Kang (2004), Joo와 Shin (2012)의 간호학생들 대상 이미지 조사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개인적 측면의 이미지가 낮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의 전문성이나 숙련성의 측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고, 친척이나 가족에게 권할 만한 직업이다 등의 항목에서 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선행연구(Kim & Kim, 2001; Lee, Kim, & Kim, 2004; Park, 2012; Yang, 1998; Yang, 200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간호학생들은 간호사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한다거나 의사와 동료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간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들은 전문직의 필수 요건으로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 직업이라는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존경, 기대의 이미지는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생들은 '불친절'하고 '짜증 섞인 투로 이야기 한다' 등의 개인적 이미지가 덜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6)에서 실시한 간호사 이미지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78.2%가 '간호사를 따뜻하고 친절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64.9%는 '간호사는 의사와 동료관계에서 일한다'고 생각했고, '가족 중에 간호사가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82.9%가 응답했다. 간호사 각 개인의 이미지가 병원 이미지도 좌우하므로 병원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 태도를 향상시키는 훈련 등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가지 하부 영역 중 전통적 이미지는 실습 전(4.09±0.88)보다 후(4.12±0.75)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1.001, p=.338$), 사회적 이미지는 실습 전(3.73±1.04)보다 후(3.85±1.04)가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3.360, p=.015$). 전문적 이미지는 실습 전(4.39±0.77)보다 후(4.25±0.74)가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t=4.987, p=.004$). 이 결과는 전문적 이미지 중 '간호사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항목이 실습 전(4.22±0.97)보다 실습 후(4.08±0.80) 평균이 확연히 낮아진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간호학생들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간호 관리자 등은 대중의 90% 이상이 간호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여기고 있음(Korean Nurses Association, 2006)을 현장 간호사들에게 널리 알리어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무시키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전후에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수준은 실습 전(4.03±0.93)보다 실습 후(4.05±0.85)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t=-0.546, p=.589$)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이 간호사를 처음 대면하고 간호사의 환자 간호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현재 학생 신분으로서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선배 간호사와 비교해볼 것이다. 간호학생은 자신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능숙하게 일해내는 간호사를 보며 간호사 이미지를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간호사 이미지가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Kim과 Kang (2004)의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실습 전보다 실습 후가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인 Yang (2003)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세 연구 간에 첫 임상실습 기간과 실습 환경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차후에는 실습기관과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실습 시 경험한 간호사 이미지를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상자의 제 특성별 간호사 이미지 차이를 살펴보면, 26세 이상의 간호학생들이 25세 이하의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미지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다른 대학을 다니다 편입했거나 졸업을 하고 다시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여서 자신이 간호를 전공해야겠다는 동기가 이미 분명하고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하여 지망한 경우라 여겨지므로 이미지 점수가 높았다고 생각된다. 남학생의 실습 전(4.17±0.79)과 실습 후(4.09±0.76) 이미지가 여학생의 실습 전(4.01±0.95)과 후(4.04±0.8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데 있어 이미 간호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Park, 2012). 간호사 관련 경험에서는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의 실습 전(4.05±0.63)과 실습 후(4.07±0.54) 이미지가 입원 경험이 있는 학생의 실습 전(4.02±0.45)과 후(4.02±0.57)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입원 환자 문병 경험이 없는 경우의 실습 전(4.16±0.66)과 실습 후(4.50±0.32) 이미지가 문병 경험이 있는 학생의 실습 전(4.03±0.55)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대상자 본인의 입원 경험 유무와 가족 입원 시 보호자 역할 경험 유무, 그리고 입원환자 문병 경험 유무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Yang (1998), Kim과 Kang (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입원 유무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임상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간호사의 역할이나 태도, 능력 등이 간호학생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실습 전(4.06±0.44)과 실습 후(4.24±0.44) 이

미지가 가족, 친지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의 실습 전(4.01±0.65)과 후(3.87±0.59)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후의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655, p = .010$). 이 같은 결과는 실습 전에 가족, 친지 중에 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있다고 응답한 군이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실습 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던 Yang (2003)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간호학생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간접 경험한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한 실습이 보다 직접적으로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접한 경험 유무에 따라 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Yang (1998)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속의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의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Lee, Kim과 Kim (2004)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간호사 관련 보도를 본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im (1996)의 연구에 의하면 TV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는 수동적, 의존적, 불친절, 기계적이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중매체들이 보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간호사를 그리고 있지만 아직도 왜곡되어 표현하는 대중매체는 간호직의 긍정적 이미지에 걸림돌이 된다. 이처럼 대중매체가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중매체의 올바른 보도를 위해 간호전문직 단체의 매체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대중매체가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간호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4년제 1개교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전과 후의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하였으므로 3년제 간호과 학생들과의 비교가 불가능하고, 일개 지역에 한정되어 표본이 추출되었으므로 대표성에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나 간호 교육 시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간호학생들이 간호사 이미지의 인식과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며, 교수는 임상실습 지도를 통해 양질의 간호수행을 위한 포부와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재학기간 중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곧 졸업하여 간호사가 될 학생들이 좋은 간호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간호사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간호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사 역할 모델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Hoeve, Jansen, & Roodbol, 2014; Kim & Kang, 2004; Oh, Choi, Kwon, & Park, 2005; Park, 2012), 이를 위한 간호전문직 단체의 노력과 임상실습 흥미와 만족감,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간호교육 전략 개발을 위한

교수 및 병원에 소속된 임상실습 지도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첫 임상실습 전후에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조사하여 임상실습이 간호사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6월 임상실습 전과 후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결과, 첫 실습 전보다 실습 후에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첫 임상실습이 간호사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의 간호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여,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지침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수준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과과정 및 임상실습 과정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개발된 교과와 실습과정 적용 후,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형성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연구도 제언한다.

REFERENCES

- Craven, R., Hirnle, C., & Jensen, S. (2013). *Fundamentals of nursing: human health and function*.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Wolters Kluwer Health.
- Emeghebo, L. (2012). The image of nursing as perceived by nurses. *Nurse Education Today*, 32(6), e49-53.
- Gordon, S. (2010). Nursing needs a new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7(4), 403-404.
- Hoeve, Y., Jansen, G., & Roodbol, P. (2014). The nursing profession: public image, self-concept and professional identity. A discussion pap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0(2), 295-309.
- Im, M. L. (1996). *Research on conten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oo, M. K., & Shin, G. Y. (2012).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3), 510-521.
- Kim, H. J., & Kim, H. O. (2001). A study on image of the nur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1), 97-110.
- Kim, K. H. (2006). *Medical dictionary*. Seoul: Hyunmoonsa.
- Kim, W. O., & Kang, H. S. (2004). Changes of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as every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0(1), 41-47.
-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6). Research on image of nurses. *The Korean Nurse Webzine*, vol. 244.

- Lee, D. S. (1995). *Nurse image through the public's ey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S. H., & Kim, J. A. (2006).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1), 52-62.
-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 Oh, D. J., Choi, C. J., Kwon, B. E., & Park, Y. H. (2005). The effect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64-72.
- Park, J. H. (2012). *Comparison of nurses' image among BSN, 2nd-BSN and RN-BS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Yang, I. S.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2), 289-306.
- Yang, J. J.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9(1), 64-72.